

## 만성피로증후군의 특징적증상(Ⅱ)

문국진/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 만성피로증후군 치매(癡呆)

만성피로증후군(CFS)환자가 나타내는 증상과 소견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뇌의 병변이다. 또 뇌의 병변의 심한 정도는 발병기일과 비례하여 오랜동안 만성피로증후군을 앓은 환자일수록 병변이 뚜렷하며 또 환자의 연령과도 관계된다는 것이다.

즉 1988년에 미국의 다호호(湖) 지방에 발생한 만성피로증후군환자를 조사하였던 바, 그 뇌병변의 발현율은 10대 환자에서는 15%, 20대는 33%, 30대는 35%, 40대는 52%, 50대 이상에서는 78%였다고 한다.

이러한 뇌병변은 뇌를 순환하는 혈액량의 현저한 감소에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가 많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경우는 건강한 사람보다 뇌혈류량이 반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

히 특징적인 것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좌 우 뇌의 혈류량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는 것인데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경우는 그 차가 약 두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뇌혈류량이 감소된 부위는 산소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격한 기능의 감퇴가 야기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뇌의 기질적(基質的)인 병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뇌병변을 일으킨 환자가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증상은 사고장애(思考障礙)이며 주위의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서도 당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성피로증후군환자를 검사할 때 자주 보게 되는 증상으로 환자는 눈을 감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묘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경감해 보려는 노력에서 나타내는 증상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견과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만성피로증후군 치매(癡呆)라고 부르며 이런 환자가 나타내는 사고장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만성피로증후군환자가 나타내는 정신적 장애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기억장애이다. 또 이렇게 나타난 기억장애는 되돌이킬 수 있는 있으나 원상대로는 되지 않는다.

2)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기억장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 순간 곧 또 생각하려던 것의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3) 만성피로증후군환자는 4~5세 가량의 어린이가 가능한 그림의 연결맞추기를 하기 곤란해 하거나 또 한다면 매우 더디게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만성피로증후군 치매라고 한다는 것이다.

###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피부 기능의 저하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각종 침입요소를 방어하는 기능을 지녔다. 그러나 피부에 적으나마 상처가 있으면 이곳을 통해 바이러스

또는 세균 등이 몸에 침입하게 된다.

만일 각종 침입요소가 몸안에 침입하기전, 관문에 해당되는 피부에서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면 세균 등의 침입이 불가능해 질 것이다.

이렇게 피부가 방어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부 자체에 정확한 식별능력을 요하게 되는데 건강한 피부에서는 이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피부에서는 이물(異物)을 식별하는 면역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피부에 있어서의 항원(抗原)을 식별하는 과정은 T세포라고 불리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기억장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 순간 곧 또 생각하려던 것의 기억을 상실해 버리는, 건강한 사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증상을 연발하게 된다.

우는 면역계 세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이를 세포성면역이라 한다.

그런데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경우는 세포성면역의 저하를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교수(마이애미 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약 80%에서 세포성면역이 저하된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경우 피부에 발진(發疹)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어린이 환자에게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Human Herpes Virus-6(HHV-6)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서 이런 환자의 혈청검사서서 HHV-6에 대한 항체가 높은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입안 점막에는 적은 수포(水泡)가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진균(真菌)에 의한 구강내 감염 때문이라고 한다.

그 외에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피부에는 직경 2~3cm 정도의 적은 종양이 생기는 수가 많고 또 눈에는 마치 거미줄과 같이 보이는 적은 출혈을 보이는데 이것은 모종의 바이러스가 피부 또는 피하에 침입하여 궤양, 종양, 출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아마도 몸안의 다른 부위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중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손가락의 지문(指紋)이 소실 된다는 사실이 다.

체니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자기가 취급한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25%에서 지문이 소실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지문을 형성하는 피부의 융기선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지문이 소실되는 사실은 환자가 만성피로증후군에 이환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 경찰에서 채취하였던 지문은 뚜렷하게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 지문 분류가 가능 했는데 병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지문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과학수사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만성피로증후군환자의 지문 소실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